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PROMISE OF US

가제 : 다시? 다시.

저자 : Jamie Beck

출판사: Montlake Romance

발행일: 2019년 4월 9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로맨스



★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 “작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로맨스를 감각적으로 그리면서도 정서적 갈등을 진하게 담아낸 소설. 트라우마, 상실, 우정, 가족에 관한 묘사는 깊은 울림을 안겨준다” - 「커커스 리뷰」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꽃피울 기회도 얻지 못한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가장 믿었던 사랑과 우정을 동시에 잃는 상실감까지 느껴야 했던 클레어에게 또 다시 한 차례 폭풍을 예고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더 힘든 일도 없으리라 체념하고 살았지만 클레어의 삶에는 여전히 놀랄만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로맨스 소설들로 큰 인기를 받아온 저자는 ‘생추어리 사운드’ 시리즈의 두 번째 이야기인 이 소설에서 다시 한 번 희망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의지에서 나오는 힘을 따뜻한 사랑과 함께 보여준다.

코네티컷의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라일락 레인에서는 클레어에게 찾아온 크나큰 변화와 되돌릴 수 없을만큼 뒤엉킨 관계를 풀어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열다섯 살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클레어는 촉망받는 테니스 선수였다. 쇼핑몰에서 고한이 무작위로 쏘아댄 총에 다리를 맞고 영원히 절름발이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지 않았다면 클레어는 누구보다 빛나는 선수가 되었을 터였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팡이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클레어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클레어의 착각이었다. 남자친구 토드가 클레어 몰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상대는 바로 클레어의 죽마고우였던 페이튼이었다. 남자친구의 배신도 배신이었지만, 가족이나 다름 없었던 절친 페이튼의 배신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여행 작가인 페이튼은 늘 모험을 만끽하며 세계 곳곳을 두루 돌아다녔다. 사고 이후 과잉보호하는 부모님 때문에 생활 환경이 매우 제한

적이었던 클레어와 달리, 토드가 세계 곳곳을 누비는 여행 작가인 페이튼의 자유분방한 매력에 토드가 끌렸다는 점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런 흔들리는 토드를 받아준 페이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던 어느 겨울날, 코네티컷을 떠났던 페이튼이 돌아오며 클레어의 세계는 또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클레어가 10대 시절 동경하고 짝사랑했던 페이튼의 오빠 로건까지 함께 돌아와 클레어의 마음을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을 친다. 페이튼이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클레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사실 그동안 페이튼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중이었다. 오랜 우정 대신 선택한 토드는 병든 자신을 버리고 떠났고, 페이튼에게 남은 건 후회 뿐이었다. 페이튼의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오빠 로건은 페이튼이 용서 받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다시 만난 클레어는 풋풋한 어린 시절에 봤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저 순하고 착하기만 했던 클레어는 사고 이후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재기해 멋지게 일하며 주관이 뚜렷한 어엿한 커리어우먼이 되어 있었다. 동생과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리저리 고민하던 로건은 클레어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뉴욕 도심에 있는 자신의 최고급 빌라 리모델링을 클레어에게 맡기기로 결정한다. 로건의 의도를 꿰뚫고 있는 클레어는 다분히 계산적인 그의 제안에 별척 화부터 냈지만, 냉정히 물리칠 수가 없다. 공들여 시작한 첫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 사실보다 더 클레어를 갈등하게 한 건, 로건과 눈이 마주칠 때 여전히 두근대는 마음이었다. 결국 로건의 제안을 받아들인 클레어는 그에게 흔들리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갈수록 깊어지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한다. 로건 역시 클레어와의 협업을 통해 낯선 변화를 경험한다. 처음으로 느낀 진짜 사랑의 감정은 그를 당혹스럽게 한다. 얽혀버린 관계, 아픈 기억과 상처를 딛고 조금씩 성장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큰 감동을 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이미 벡(Jamie Beck)은 북셀러 어워드 결승에 두 차례 오르고 내셔널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를 수상한 베스트셀러 로맨스 소설 작가다. 『In the Cards』, 『The St. James』 시리즈, 『The Cabot』 시리즈 등 현재까지 출간된 책은 총 200만 부 이상 판매되고 4개 언어로 번역됐다.

제목 : LYING NEXT TO ME

가제 : 나를 믿지마

저자 : Gregg Olsen

출판사: Thomas & Mercer

발행일: 2019년 5월 21일

분량 : 396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출간 후 킨들 베스트셀러 1위, 2019년 8월 11일 기준 아마존 차트 11위

★ “폐쇄 공포증을 느끼게 하는 어두운 스릴러. 반전과 놀라움이 가득하다.” – 베스트셀러 작가 캐롤린 미첼(Caroline Mitchell)

★ “영리하고 오싹한 퍼즐 같은 이야기. 예리하고 매혹적이다” – 작가 A. J. 배너(A. J. Banner)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지만 매일 몰아치는 업무와 바쁜 일상 때문에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애덤은 아내와 딸, 세 식구만 오붓하게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마침 전몰장병 추모일 연휴가 다가왔고, 애덤은 그림 같은 오두막이 딱 세 채 서 있는 외딴 해변에 가기로 한다. 저마다 예쁜 꽃 이름이 붙여진 바닷가 오두막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애덤의 계획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산산조각 나고 만다. 두 눈을 멀쩡히 뜨고서 아내 소피가 괴한에게 납치되는 광경을 보게 된 것이다. 딸 오브리를 데리고 작은 배에 올라 해변에서 9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애덤은 오두막 앞에 나와 혼자 와인을 훌쩍이며 책을 읽고 있던 소피가 비명을 지르자마자 웬 남자가 소피를 향해 무언가를 소리치는 것을 보았고 그 때부터 미친 듯이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겨우 배를 대고 얼른 소피가 앉아 있었던 곳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소피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망연자실한 애덤은 바로 옆 오두막에서 숙박 중인 나이 지긋한 여성과 해변에서 조깅을 하던 70대 남성에게 얼른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낮익은 얼굴이 애덤 앞에 나타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형사 중 한 명이 어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던 리라라는 사실을 알고 애덤은 놀라면서도 반긴다. 학창시절 단짝친구의 여동생이 경찰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지만 직업 군인이었던 그 친구가 아프간에서 전투 중 세상을 떠난 후로는 연락이 끊겨서 그의 여동생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형사로 활동 중인 것도 몰랐다. 리라 역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애덤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더욱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다독인다. 이 외진 해변까지 오게 된 배경, 도착 시간, 나머지 두 오두막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피가 납치 당하던 순간에 본 일들을 애덤의 입으로 먼저 하나하나 듣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리라는 이 사건이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졌다면 애덤의 모든 증언들을 다 믿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그가 진술한 모든 것들이 현실과 동일하다고 간주하긴 어려웠다.

세 채의 오두막 중 중간에 자리한 집에는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놀러 온 할머니가 애덤네 가족이 오기 전부터 머물고 있었고, 나머지 한 곳에는 사고 전날 밤 늦게 도착한 젊은 부부가 묵고 있었다. 애덤은 회사에 급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소피와 오브리만 먼저 금요일 오후에 이곳에 도착했고, 애덤은 금요일 밤이 되어서야 올 수 있었다. 리라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휴가를 왔다는 애덤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었냐고 물었지만 애덤은 굳이 다 말하지 않았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든 자신과 소피의 부부 관계에 꽤 오래 전부터 무거운 침묵과 위선, 거짓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을 아내가 납치된 날 이야기했다가는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애덤이 아내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이미 수개월 전의 일이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아내의 이메일 계정에 만들어진 ‘개인 보관함’, 그리고 무심코 클릭한 그 편지함에서 발견된 연인과의 뜨겁고 진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본 순간 애덤은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사실 애덤 자신도 아내 몰래 한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욕구를 분출하는 대상일 뿐 큰 의미는 없었다. 그러나 소피가 연인에게, 그리고 그 연인이 아내에게 쏟아낸 표현들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너무나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애덤은 아내에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마치 생태학자가 된 기분으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대체 5년간 함께 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애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난다. 오브리가 자신이 아니라, 소피와 내연남 사이에서 만들어진 아이라는 믿기 힘든 진실은 애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 리라 형사는 소피가 납치되기 전날 밤 해변의 빈 오두막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크리스틴과 코너 부부가 바로 애덤 부부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님을 알아낸다. 코너 모스, 그가 바로 소피의 연인이었고, 그의 아내인 크리스틴 역시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소피에게 거의 모든 것을 걸고 폭 빠져 있었던 코너가 남편인 애덤과 그리고 사실은 자기 딸인 오브리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인 나머지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나고 코너는 체포된다. 그러나 이 때 리라가 애덤 부부가 머물렀던 오두막 뒤쪽에서 첫 조사 때 놓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개는 맞는다. 어쩌면 형사인 자신이 잘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보면 가장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끔찍하고 교활한 거짓말의 실체가 그제야 서서히 드러난다. 흡입력 있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그렉 올슨(Gregg Olsen)은 『The Sound of Rain』, 『The Weight of Silence』 등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 소설과 논픽션을 쓴 소설가다. YA 소설 『Envy』는 워싱턴 주의 ‘내셔널 도서 페스티벌’ 책으로 공식 선정되었으며 『The Deep Dark』는 아이다호 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제목 : SKIN

가제 : 스킨

저자 : Elizabeth Reapy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9년 8월 8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현대소설



*** 데뷔 소설 『Red Dirt』로 아일랜드 도서상을 수상한 아일랜드 출신 작가의 신작 - 자신의 몸을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여성의 긴 여행과 성장, 마침내 찾아온 변화를 그린 소설**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 학교 선생님이 된 나탈리가 교편을 잡은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가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낯선 감정을 느낀다. 분명 자신이 살아온 인생인데 남의 인생처럼 아무런 감흥도 없고 어떠한 열정도 느낄 수 없었다. 일단 무턱대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 이런저런 임시직을 하며 생활비를 버는 동안 나탈리는 덧없이 흘러간 삶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낯선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자각한다. 매일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이 나탈리는 낯설었다. 매력적이지 않은 건 당연하고 우스꽝스럽고, 어색하고, 이상했다. 그래서 나탈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은 아주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의미로 다가왔다. 여행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친구의 이야기가 솔깃했던 것도 그래서인지 모른다. 나탈리는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짐을 챙겨 우충충하고 싸늘한 아일랜드를 떠나 해가 짙은 호주 다윈으로 떠난다. 그곳에 사는 이모와 잠시 지내다가 뉴질랜드로 건너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머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볼 계획이었다.

호주로 가는 길에 경유하게 된 발리는 나탈리의 첫 번째 여행지가 되었다. 떠나온 곳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후와 문화 속에서 낯이 나간 나탈리는 도착하자마자 모기에 물어뜯긴 몸을 긴 스커트와 펄퍼짐한 티셔츠로 덮고 사람들이 ‘천국’이라 일컫는 발리 시내를 돌아다닌다. 파리가 들끓는 과일 판매대, 능숙한 손길로 손질된 온갖 생선들이 양동이에 놓여 있는 수산물 시장, 한 걸음 떼기가 무섭게 음료수를 사라고, 식당에 들어오라고 끈질기게 따라 붙는 사람들을 헤치며 걷는 동안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다. 또 다시 익숙한 불안감과 극심한 혼란이 솟구치자 나탈리는 얼른 숙소로 발걸음을 돌린다. 어떤 말도 정확히 들리지 않을 만큼 소란스럽고 시골벽적인 곳에서 혼자 섬처럼 뚝 떨어진 기분은 더욱 선명해졌다. 숙소 옆방에 묵고 있는 마리아라는 여성은 나탈리에게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고, 밝은 초록색 비키니만 걸친 자신과 달리 온 몸을 옷으로 감싼 나탈리에게 왜 이런 천국 같은 곳을 즐기지 못하냐고 핀잔을 준다. 나탈리는 의자에 앉아 있어도 땀살이 접히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보이는 마리아의 외모를 보며 더욱 움츠러든다.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땀이 배어 나오는 엄청난 습기와 소란스러운 발리에서 나탈리는 절대로 편

할 수가 없었다. 마리아의 종용에 마지 못해 해변가 바에도 가보지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남자들의 친근한 태도에도 나탈리는 줄행랑 치고 싶기만 하다. 함께 놀자는 사람들의 권유도 바보같은 핑계로 다 거절한 뒤 혼자 식당에 들어가 위가 찢어질 만큼 폭식을 하는 것이 불안감과 허전함을 달래는 나탈리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동시에 자신에게 내리는 가혹한 벌이기도 했다.

소설은 나탈리가 발리를 거쳐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페루까지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첫 여행지에서 이토록 요동치던 감정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따라간다. 낯선 장소에서 혼자 뚝 떨어져 지내는 동안 자신의 몸도, 인생도 한층 더 비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져 당황하던 나탈리는 점점 새로운 시도에 도전하며 사람들이 내미는 손길에도 반응하기 시작한다. 균형은 잃었지만 그런 자신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고, 충동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영민함은 잃지 않는 나탈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그대로 껴안은 채로 근본적인 고민을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한다. 자신의 몸이 남들보다 거대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운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과도한 염려와 폭식 후에 밀려오는 후회 등 나탈리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우울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예리한 관찰이 더해지며 독자 역시 나탈리가 반드시 지금의 혼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흥미진진한 여행을 따라가게 된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경험에 처음에는 마지 못해,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안 나탈리는 세상 속에 놓인 자신의 모습보다는 그 세상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과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는 법을 체득한다. 외모에 대한 불안에서 마침내 벗어난 나탈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피트니스 트레이너에 도전장을 내민다. 모든 것,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 환멸과 실망만 가득했던 나탈리가 발리에서 처음 만난 이웃의 말처럼 인생에는 놀라워할 것도 많고 열정을 쏟아낼 것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직접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한 사람의 여행기이자 성장기기를 그린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리피(Elizabeth Reapy)는 벨파스트 퀸스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더블린에서 ‘유네스코 문학의 도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작가 워크숍에 참여 중이다. 데뷔 소설 『Red Dirt』로 아이리쉬 북 어워드, 루니 아이리쉬 문학상을 수상했다.

제목 : NEVER HAVE I EVER

가제 : 진실 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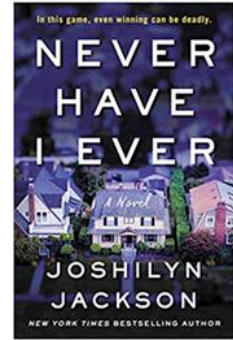
저자 : Joshilyn Jackson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9년 7월 30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 *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러시아 판권 계약 / WSJ 저널, 타임 매거진, USA 투데이 추천 도서,
- * “작가는 불완전하면서도 유능한 다층적인 인물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재능을 발휘하여, 한 명의 선동자와 그녀가 쫓는 먹이의 싸움을 스마트한 서스펜스가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다.” - 「북리스트」
- *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들과 사건들로 꽉 채워진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플로리다의 한 중산층 동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살럿이 주관하는 독서 모임이 열린다. 결혼 전에는 책을 좋아했지만 결혼 후 육아에 몰두하느라 문득 몇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살럿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웃 엄마들을 모아 이 모임을 시작했다. 매주 빠짐없이 이 모임에 참석하는 살럿의 절친 에이미는 사실 스무 명 남짓한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다. 마흔두 살에 이제 겨우 늦둥이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에이미에게는 열다섯 살 된 예쁜 딸도 있었다. 6년 전 재혼한 남편의 딸 매디는 사실 에이미가 그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였다. 동화책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은 통통하고 귀여운 아홉 살 소녀를 처음 만난 그 날 에이미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두 아이를 키우고 대학 교수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 에이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일하며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자신에게 이렇게 가족들, 좋은 이웃들로 북적이는 일상이 찾아올 거라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살럿의 독서 모임 역시 에이미에게는 매번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보름달이 유난히 크게 떠오른 저녁, 초대 받지 않은 새로운 이웃이 모임에 갑자기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간식 거리를 나오느라 분주한 살럿 대신 문을 열어 나간 에이미는 이 동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하고 눈에 확 띄는 미모를 가진 여성과 마주한다. 얼마 전, 동네 한 켠에 비어 있던 집에 아들 하나만 데리고 웬 연예인 같은 여자가 이사를 왔다는 소문이 이웃들 사이에 돌았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인 것 같았다. ‘앤젤리카 루’라는 독특한 성을 가진 이 새 이웃은 첫 방문이 맞나 싶을 만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금세 사람들과 어울렸다. 호기심 많은 주부들에게 전생애 무슨 동물이었는지 말해주겠다며 장난을 치며 깔깔대는 동안 술잔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에이미는 딱 한 잔만 마신다는 철칙이 어느새 깨진 것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닫는다. 그 때 갑자기, 루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가장 나쁜 일 이야기하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10대들이 하는 유치한 진실게임

을 갑자기 왜 하자고 하는지 의아했던 에이미는 곧 그 이유를 알게 된다. 루는 처음부터 걱정하고 에이미를 만나러 온 것이었다. 에이미는 30여년 전 그녀가 저지른 ‘가장 나쁜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을 보내는 루의 식은땀을 흘렸다.

결국은 술이 문제였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그 밤, 아직 10대였던 에이미는 큰 사고를 냈다. 그런데 무고한 이웃이 목숨을 잃은 이 대형 사고의 책임은 에이미가 아닌,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친구에게 돌아갔고 에이미는 교도소 행은 피했지만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 대학 진학을 핑계로 캘리포니아로 달아난 후, 술과 마약에 절어 엉망진창으로 살던 에이미를 겨우 절망에서 일으킨 건 스쿠버 다이빙이었다. 밤하늘처럼 짙은 바다 아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지 못하는 철저하게 어둡고 고요한 바다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은 에이미를 조금씩 회복시켰고 그렇게 그저 견디면서 살아온 삶에 선물처럼 남편과 매디가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이 듬뿍 안겨준 사랑이 늘 채워지지 않던 마음을 얼마나 꼭 채웠는지 잘 알기에, 에이미는 난데없이 나타나 자신의 가장 두려운 과거를 들추려는 루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결심한다. 예상대로 목적은 돈이었다. 비밀을 폭로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가하며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요구하는 루를 이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 역시 어딘가 수상한 루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뿐이었다.

에이미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최선을 다해 일상을 유지하며 앤젤리카 루의 정체를 밝히는 동안 루는 사람을 잡아 끄는 특유의 마력을 심분 발휘하며 이웃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무엇보다 거슬리는 건 루의 아들 루카가 매디와 부쩍 가까워진 일이었다. 매디와 동갑인 루카는 조금 소심하고 말수가 적은 평범한 아이 같았지만 에이미는 지나치게 무표정하고 멍 때리기 일쑤인 루카에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을 감지한다. 협박이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자 루의 집에 몰래 들어간 에이미는 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알아챈다. 각기 다른 머리 색깔로 찍은 사진과 다른 이름이 담긴 여러 개의 여권들, 실명과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신원 증명서를 가진 루의 은밀한 서류함에서 에이미는 루카의 본명이 적힌 문서와, 누군가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 멍들고 피를 흘리는 루의 모습이 담긴 여러 장의 폴라로이드를 발견한다. 루카의 생부 혹은 전남편의 무자비한 폭력을 피해 아들과 함께 몰래 달아난 것이리라 추정한 에이미는 자신을 옹아매려는 루를 그녀를 쫓는 사냥꾼, 이토록 폭력적인 전남편의 손에 넘겨주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하지만 전남편의 연락처를 찾던 에이미는 루카가 에이미의 아들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낸다. 쫓고 쫓기는 루와 에이미의 피 말리는 싸움이 반전을 향해 내달리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다.

<저자 소개>

조실린 잭슨(Joshilyn Jackson)은 『A Grown-Up Kind of Pretty』 등을 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다. 현재까지 쓴 책들이 12개 언어로 번역됐다. 6년 동안 조지아 주 여성 교도소에서 글쓰기와 문학을 가르치는 강사로도 활동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오디오북 나레이터이기도 하다.

NON-FICTION

제목: I NEVER SAID I LOVED YOU

가제: 나가기 싫다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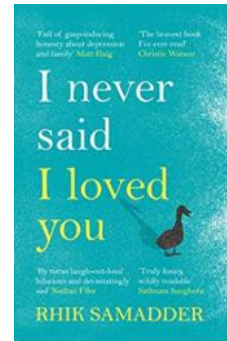
저자: Rhik Samadder

출판사: Headline

발행일: 2019년 8월 6일

분량: 320 페이지

장르: 회고록



- *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 “자해와 자기 혐오, 슬픔, 섭식장애, 자살, 그리고 섹스에 관한 회고록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이고, 흡입력 있고, 힘이 느껴지는 책”
- * “가슴이 찢어지는데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회고록” - 소설가 메리엔 키스(Marian Keyes)

집 안에만 틀어박혀 아무데도 나가지 않던 아들의 서른 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과 둘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크리스마스 연휴도 가까워졌으니 겸사겸사 멀리 여행 가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어머니의 말에도 아들은 별 반응이 없었다. 버마에서 태어나 1979년부터 영국에 쪽 살다가 마침내 시민권을 획득한 어머니는 그 기쁨을 영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축하하고 싶다고 하며 아들을 설득한다. 모자의 목적지는 호주였다. 두 사람은 3주에 걸쳐 거대한 호주 대륙 곳곳을 누볐고 어머니는 충분히 즐거워했다. 하지만 마지못해 따라나선 아들은 항공사 직원들이 비행기에 탈 수 있겠냐고 거듭 확인할 정도로 내내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어디를 다치거나 피가 나서가 아니라, 이미 거의 3년째 몸과 마음을 집어삼킨 우울증의 기색이 온 몸으로 터져 나와 누가 봐도 ‘덜컹하지 않은’ 물결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어머니가 무슨 목적으로 이 여행을 제안했는지 잘 알기에, 저자는 여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어머니가 열심히 모아둔 돈을 쏟아부어 매사에 불안도 많고 말수도 적은 다 큰 아들을 데리고 비행기에 오른 이유는 헤어날 방법도, 의지도 없이 가라앉아 있던 아들을 우울증의 늪에서 꺼내기 위해서였다. 뜻밖에도, 마지막 목적지인 태국에서 어머니의 그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 인터넷으로 숙소를 찾아 편리하게 착착 예약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는 고단한 여행 과정에서 어쩌다 잘못 잡은 방콕의 ‘섹스 호텔’ 방안에서 서른 살 생일을 맞이한 저자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어릴 때 겪은 성폭행에 관해서, 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고 어떤 심정인지 쏟아냈다. 저자는 바로 그 날, 그 순간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계시’ 같은 것이 찾아온 기분이었다고 설명한다.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던 우울증의 손아귀가 약간 풀어진 그 때, 저자는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보기로 결심한다. 그

강력한 영향에 휘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알아보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이후 저자가 시작한 조사와 연구,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담고 있다.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탐구를 통해 저자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할머니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고 너무 오랫동안 숨기고 파묻어 놓았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서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때마다 와락 덮쳐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야 우울증의 손아귀에 다시 붙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음을 알게 된다. 겨우 여섯 살 때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해야 했던 엄마 대신 저자를 돌봐주던 고마운 사람의 집에서 겪은 성폭행 이후 길을 잃어버린 저자는 멀쩡한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을 아예 직업으로 만들자는 작정으로 ‘전문 연기자’가 되기 위해 드라마 센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한 채 내면에서 나날이 더 부패하는 아픈 기억은 섭식 장애와 자해, 자살 충동으로 끊임없이 튀어나와 저자를 옭잡달짝 못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이토록 외면하고 싶을 만큼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에 유머라는 의외의 요소를 섞어 담담하게 들려준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 회화화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은은한 조명이 떨어지듯, 침묵과 암흑 속에 묻어 둔 그 일들에 빛을 비춘다. 그러면서 비로소 알게 된 계속 살아가는 방법에서 큰 감동과 울림을 느낄 수 있다. 독창적이고 진솔한, 그리고 좋은 의미로 너무나 독특하고 신선한 회고록이다.

<목차>

머리말

1. 계속 나아가는 법
2. 기억하는 법
3. 죽는 법
4. 내 몸 안에 내가 머무르는 법
5. 다른 사람의 몸에 머무르는 법
6. 슬퍼하는 법
7. 혼자 남는 법
8. 떠나 보내는 법
9. 노력하는 법
10. 말하는 법

<저자 소개>

릭 사마더(Rhik Samadder)는 작가, 배우, 방송인으로 활동해왔다. 「가디언」에서 전자제품 리뷰를 정기적으로 기고해 왔으며 「옴저버」, 「맨스 헬스」 등에도 글을 기고했다. 런던 드라마 센터에서 연기 공부를 마치고 HBO, BBC, ITV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제목 : CREATIVE CARE

가제 : 철없는 노인 되기

저자 : Anne Basting

출판사: HarperOne

분량 : 약 249 페이지

장르 : 건강



***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진행되는 기억력 감퇴를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노인 건강 관리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책**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만 맛볼 수 있는 긴장감은 설렘을 동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고, 공연을 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그런 설레는 긴장감을 만끽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바로 집 앞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 만큼 건강이 쇠약해지면, 게다가 갈수록 기억력도 나빠지고 순간적인 대응 능력까지 악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건 필요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다. 비슷한 또래보다 유독 육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해서 ‘다른 노인들’처럼 가만히 틀어박혀 지내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노인들을 나이에 안 맞게 산다는 이상한 잣대로 평가하면서 그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유튜브 스타 박막례 할머니의 ‘이대로 죽을 순 없다’는 외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격한 공감과 응원을 얻는 이유는, 몸과 정신이 좀 쇠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만이 안겨주는 희열을 포기할 필요가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때문은 아닐까. 25년간 노인들에게 다양한 예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선사하고 이 기회가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노인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이 왜 필요한지 상세히 설명한다.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돌봐줘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낙인 찍힌 노인들도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저자는 노인들이 그와 같은 벅찬 감정을 누릴 때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사회가 노인들을 챙기려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방식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남은 생을 큰 의미 없이 외롭게 살도록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깨기 위한 방법을 골몰하던 저자는 연극과 즉흥 연주에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을 접목시켜 요양 시설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신체 건강과 함께 인지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은 물론이고 치매로 고통 받는 노인들도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이 되고 다 소진되고 사라졌다고들 생각하는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한다. 특히 치매 환자들의 경우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그들과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가족, 친지 모두가 괴로워하지만,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준다. 저자는 스토리텔링의 힘과 적극적인 청취 등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각 장에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환자들이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동시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 괜히 주저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상력과 무언가에 놀라고 기뻐하는 감정이 깨어나면 인지 능력과 상관 없이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다시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저자는 현재 의학계와 사회 전체의 노화 관리 방식에 관한 포괄적인 탐구와 번듯한 계획 뒤에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노인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더불어 저자가 고안한 색다른 방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날 수 있다.

<목차>

1부. 창의적인 관리를 찾아서

1장. 루스가 내게 가르쳐준 즐거움의 실체

2장. 친구가 없어서 좋은 점

2부. 창의적인 관리란 무엇일까

3장. 상반되는 것들이 하나로 모일 때

4장. 네, 그리고...

5장. 아름다운 질문

6장. 듣고 있다는 증거

7장. 더 큰 세상과의 유대

8장. 마음을 열어야 놀라움이 찾아온다

9장. 세 가지를 모두 하나로 - 삶을 놀라운 일들로 채우기

3부.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관리 방법도 바꿀 수 있다. (10-17장)

<저자 소개>

앤 바스팅(Anne Basting)은 혁신적인 기억력 관리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 'TimeSlips'의 창립자로 25년 이상 노화와 노년층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를 이어왔다. 맥아더 재단이 수여하는 '지니어스 지원금' 대상자로도 선정된 적이 있다. 저서로는 『The Stages of Age』, 『Forget Memory』, 『The Penelope Project』가 있다.

제목 : THE 100% SOLUTION

가제 : 100% 솔루션: 기후변화 A-Z

저자 : Solomon Goldstein-Rose

출판사: Melville House

발행일: 2020년 봄

장르 : 환경



- * “기후 변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현재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밝히고,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모두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 -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nlightenment Now』의 저자 스티븐 핑커
- *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밀레니엄 세대와 30년째로 접어든 기후 변화 관련 논쟁의 해묵은 의제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틈을 채워줄 신선한 목소리” - 환경단체 ‘Clean Air Task’ Force의 창립자 겸 총괄, 아몬드 코헨

기후 변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전 세계가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2050년까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최악의 사태를 막지 못한다는 점에도 대다수의 전문가가 동의한다. 문제는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도달해야 할 목표도 뚜렷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다. 악화일로에 놓인 기후 변화의 속도를 약화시킬 만큼, 혹은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온실 가스를 줄이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열한 살 때부터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사회 운동을 시작했고 스물두 살에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밀레니엄 세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꼽히는 저자는 무수한 회의론과 냉소적인 입장들도 많지만 분명 기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한다. 단,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는 절반쯤, 혹은 일부분만 해결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온실 가스 문제는 반드시 100%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실 가스는 95%를 없애는 것으로도 부족하며 공기 중에 마음대로 뿌려지는 이 해로운 배출 물질을 완전히 없애야 이산화탄소의 비율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세대와 지구에서 살아가야 하는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악영향은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오히려 더 겁을 먹게 될 수도 있는 이 파격적인 목표가 왜 달성 가능한지, 그러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무엇보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부터 바뀌어야 하는 이유도 이야기한다.

특히 이 책은 텍스트와 함께 100장에서 200장에 달하는 컬러 이미지가 포함되어 저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시각적으로도 더 명확하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진과 도표, 그래프, 손으로 직접 그린 일러스트 등 책에 포함될 이미지는 저자가 직접 기획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모금한 비용으로 마련된다.

현재 지구 대기를 잠식한 온실가스 중 3분의 2가 개발도상국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러한 국가들이 채택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기술과 농업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연구와 개발, 검증에 참여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노력이 온실 가스를 100% 없애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주력해야 할 5대 핵심 목표를 제시하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설명한다.

저자의 헌정 활동과 사회 운동, 정책 인턴 경험과 에너지 시스템 등 기후 변화 문제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파고든 연구 결과가 집약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밀레니엄 세대의 생각: 점진적 사고 vs. 체계적 사고
2. 100% 사고
3. 인도를 잊지 말자
4. 혁신 프로젝트
5. 주축 1: 전기 생산
6. 주축 2: 전력화
7. 주축 3: 합성 연료
8. 주축 4: 에너지를 제외한 변화
9. 주축 5: 탄소 격리
10. 프로젝트를 넘어선 평가
11. 결론

<저자 소개>

솔로몬 골드스타인 로즈(Solomon Goldstein-Rose)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공학과 공공정책을 공부했다. 스물두 살에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7-2019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11세부터 기후변화 운동가로 활동했고, 오바마 정부의 환경 정책에도 인턴으로 참여했다.

제목 : JUST DON'T BE AN ASSH*LE

가제 : 아들아 쓰레기만 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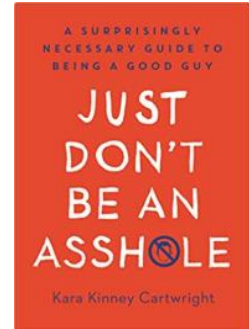
저자 : Kara Kinney Cartwright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20년 3월 24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교육



*** ‘남자’의 경계에 선 소년들을 향한 엄마의 경고와 잔소리, 길잡이가 담긴 책 - 쓰레기 같은 성인 남자가 아닌 반듯하고 올바른 성인으로 크는 방법을 톡 터놓고 알려주는 안내서**

대다수의 부모는 자식이 어디 가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철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냥 친구들 따라 하느라 부적절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톡 해 버리는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온갖 방법으로 납득시키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이 다 부질없는 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뉴스에 나올 만큼 큰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말 끝마다 욕설이 추임새처럼 붙는 아이들, 장애를 가진 친구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친구 등을 공개적으로 놀리는 아이들을 보면 대체 가정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한 건지 의구심부터 들게 마련이다. 10대 남자아이 둘을 키우면서 이 허무하고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저자는 사람이 아닌 짐승 손에 자란 것마냥 날뛰는 십대 남자 아이들이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사람의 아이’로 잘 클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세상의 모든 10대 남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형태로 작성된 글에서 저자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지 않는 법’을 총 10가지로 나누어 하나하나 설명한다. 과거에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따끔한 충고와 잔소리가 아이들의 정도를 넘어서 버릇 없고 예의 없는 행동을 단속하는 주된 열쇠였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여과 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이 ‘진짜 남자다운 남자’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위험한 수준까지 부추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로 맞춘 이기적인 사람, 정확한 근거도 이유도 없는 분노에 사로 잡혀서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전념하는 쓰레기 같은 남자가 되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들을 주제별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유머 넘치는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10대 남학생들에게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한다. 가족, 친구를 비롯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마치 실체가 없는 어떤 이미지나 게임 속 캐릭터 등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무생물로 취급하는 것이 아이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변질시키는 큰 원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용돈을 쥐어 주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친척들이 너의 현금인출기는 아니며 반드시 그래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학교에서 친구들과끼리 비웃고 놀릴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본질까지 바꿔놓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교단 앞에 서서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해보여도 ‘사람’이라는 사실 등 10대 청소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완전히 틀린 생각들을 바로 잡는 조언들이 조목조목 제시된다. 특히 여자들을 대하는 방법과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 아이들이 또래끼리 의논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도 가감 없이 나와 있다.

꼭 필요한 잔소리이지만 아이가 듣기 싫어해서, 또는 말해봐야 들을 것 같지 않아서 미루고 모른 척하는 동안 소중한 시기를 쓰레기 같은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망쳐버리고 더 나아가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는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이 짜임새 있게 제시된 안내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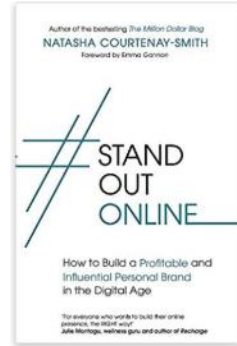
머리말.

- 1장. 학교에서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2장. 친구들에게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3장. 가족에게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4장. 일터에서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5장. 이동하는 동안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6장. 여자에게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7장. 세상을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8장. 온라인에서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9장. 너 자신에게 쓰레기처럼 굴지 마라
- 10장. 그냥 하지 마

<저자 소개>

카라 킨니 카트라이트(Kara Kinney Cartwright)는 워싱턴에서 법률 서적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제목 : #STANDOUTONLINE
가제 : #셀프브랜딩
저자 : Natasha Courtenay-Smith
출판사: Piatkus
발행일: 2018년 11월 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경영



- * “디지털 기업가로 막 출발한 사람들, 확고히 자리 잡은 사람들 모두 읽어야 할 책. 깨우침을 준다.” – 『Mumboss』의 저자, 상 받은 블로그 ‘Honest Mum’ 운영자 빅키 프사리아
- *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이고 현명한 조언이 가득하다” – 『Ctrl Alt Delete』의 저자, 엠마 개논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처럼 수많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반인이 갑자기 주목받고 유명해지는 경로가 어쩌다 TV 방송에 출연하면서 알려지는 것이 거의 유일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개인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을 알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크고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으로는 채용 필수 서류인 이력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원자의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활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 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이제는 원하던치 않은 온라인에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만 하는 때가 도래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찍어 올리기만 해도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을 기록하는 시대, 무겁고 비싼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럴듯한 사진과 동영상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에 너도나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틈에서 어떻게 ‘독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흐름에 반드시 동참해야만 하는 걸까? 이 책은 기업을 운영하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왜 온라인에서 자신만의 브랜드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현재 그 가상 세계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예로 들며 생생하게 설명하고, 생각만 해도 버겁고 부담스럽기만 한 개인 브랜드를 손쉽게, 큰 어려움 없이 직접 구축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준다. 기술적인 노하우와 이미 온라인에서 큰 명성을 쌓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한 인터뷰를 종합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필요한 만큼 도드라지는 개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TV나 PC를 이용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는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나이, 직업 등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모로 제약이 되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도 누구나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콘텐츠 하나

하나가 잠재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꼭 튀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욕심이 없어 온라인에서 영원히 유명처럼, 수동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 계정을 이용하는 상태로 머무르는 건 점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된 만큼, 자신에게 어떤 수준의 온라인 프로필과 브랜드가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불안과 걱정부터 드는 것이 사실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혹시라도 글 하나, 사진 하나 잘못 올렸다가 망신만 얻고 심지어 욕을 먹으면 어쩌지? 지금은 의욕이 넘치지만 과연 꾸준히 콘텐츠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텐데 완벽한 콘텐츠만 올려야 하는 건 아닐까? 저자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런 염려를 감안하여, 고유한 개인 브랜드와 디지털 ‘지문’은 평상시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들과 온라인 활동을 결합하여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로 구체화하고, 관리하고, 다듬는 법만 배우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 책에는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전략과 마음가짐, 기술과 함께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필요한 경우 상업적인 이득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소개된다.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을 것처럼 빼곡한 온라인 정보와 브랜드 사이에서 나만의 목소리를 찾고 두각을 나타낼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값진 조언과 사례, 아이디어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는 책이다.

<목차>

1부. 전략

- 1장. ‘온라인에서 특별한 사람 되기’의 출발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2장. 개인 브랜드: 우연일까 계획적일까
- 3장. 나의 가치, 비전, 사훈
- 4장. 나는 무엇이 특별할까?

2부. 출발

- 5장. 모든 여행은 첫 걸음에서 시작된다 - 크고 함찬 걸음으로!
- 6장. 콘텐츠로 시작하기

3부. 발전

- 7장. 콘텐츠 생산과 관리 방법 발전시키기
- 8장.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4부. 확장 (9-11장)

5장. 평가, 개선 (12장)

<저자 소개>

나타샤 코트니 스미스(Natasha Courtenay-Smith)는 기업가이자 디지털 전략가, 비즈니스 멘토로 활동 중이다. 유명 연예인과 사업가, 사상가들과 함께 일해왔다. 저서로는 『2016년에 쓴 Million Dollar Blog』가 있다.

제목 : THE UNFAIR ADVANTAGE

가제 : 부당한 기회를 이용하라

저자 : Ash Ali, Hasan Kubba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20년 1월 9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 “물러서지 않는 솔직한 이야기와 다양한 경험을 자세히 들을 수 있다. 저자의 이야기에는 기존의 생각을 부수고 자극하는 아이디어들이 담겨 있다.” – ESCP 유럽 비즈니스스쿨 교수 마틴 쿠프 (Martin Kupp)**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을 꿈꾸며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경기 불황에도 여전히 계속 등장하고 있다.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독창적인 생각,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마케팅 전략, 무엇보다 사업을 키울 수 있는 자본을 모을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올인’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끈기 등 창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 요소들은 굳이 창업을 해보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있다. 경영대학원은 물론 각종 온라인 강좌, 워크숍 등을 통해서도 ‘성공 비법’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스타트업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시들시들하다 사라져버릴까? 무엇이 그 극명한 차이를 만들까? 오랫동안 창업 시장에서 갓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투자하고, 직접 여러 차례 창업을 해본 두 저자는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성공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생각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성공하기 위해 누구나 다 갖추어야 하는 요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하고, 이 부당함에 한탄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원망해 봐야 사업에도, 사업가 자신에게도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기와 분노까지 유발하는 철옹성 같은 부당함 뒤에는 대다수가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자신에게도 사실 남들보다 유리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 혹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화려하고 거대한 장점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라고 간과했을 뿐 ‘우리 모두’ 남들보다 성공에 유리한 장점을 반드시 갖고 있다. 그것을 찾고, 발굴하고, 발전시켜서 사업 성공의 기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공의 열쇠다.

두 저자 중 애쉬 알리는 대학 문턱에도 가지 않고도 현재 기업 가치가 무려 40억 파운드에 이르는 영국 식품업체 ‘저스트 잇(Just Eat)’의 창립 마케팅 책임자로 발탁된 놀라운 이력을 갖고 있다. 이후에도 우버가 세상에 알려지기 훨씬 전에 개개인이 택시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서 큰 수익을 남겼고 본거지인 영국이 아닌 두바이에서도 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앱으로 또 성공을 거두었다. 저자는 버밍엄의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이민자 가정의 아이였던 자신이 온갖 불리한 요소와 세상이 가차없이 깎아내리는 단점 혹은 불리한 점에만 묶여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은 불가능했다고 확신한다. 무작정 대부분이 다 하는 방식 그대로 잠을 두세 시간만 자면서 무작정 힘만 들여봐야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두 저자는 돈, 지성, 사업을 운영할 지리적 위치, 교육 수준, 경력, 지위 등 성공의 요소로 거론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중에 유독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요소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다음 그와 반대로 이미 가진 것,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도 없고 보편적이지 않은 것, ‘나만’ 잘 할 수 있는 유리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스스로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와 사업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두 저자는 ‘MILES’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가속 페달로 심분 활용하여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성공 가도로 올라서는 방법을 알려준다.

정형화된 성공의 길 외에 틈새와 미지의 영역을 뚫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1부. 이해하라

1. 인생은 불공평하다
2. 우리의 사업 이야기
3. 힘든 노력과 운, 모두 있어야 성공한다
4. 부당한 장점 활용하기

2부. 점검하라

5. MILES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6. 마음가짐
7. 돈
8. 지성과 통찰력
9. 위치와 행운
10. 교육과 경험
11. 지위

3부. 스타트업의 문을 여는 간단 지침 (12-17장) / 결론

<저자 소개>

애쉬 알리(Ash Ali)는 위 책과 동명의 기업 훈련 업체를 설립했다. ‘Just Eat’의 마케팅 책임자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20년 이상 스타트업 창업, 성장, 광고 분야에서 일했다.

하산 쿠바(Hasan Kubba)는 애쉬 알리와 함께 위 책과 동명의 기업을 설립했다. 스타트업 전략가 겸 자금조달 자문으로 활동해왔다.